

■ 주제강연 1

조동준(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정치적 과제와 방향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I. 들어가는 글

전쟁은 인간 집단간 조직화된 폭력이 표출된 현상으로 인류가 집단생활을 시작한 이래 상수처럼 인류와 함께한다. 기원전 2,450년 일어났던 우마-라가쉬 전쟁(Umma-Lagash War)이 기록에 남은 최초의 조직화된 전쟁이지만, 인간 집단간 전쟁은 인류의 시작부터 항상 존재하였다. 특히, 신석기 시대 인류가 정주생활을 하면서 전쟁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상식이다. 인류가 지구상 전쟁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1816년부터 2007년까지 1,000명 이상 전사자가 발생한 국제전이 97회, 1,000명 이상 전사자가 발생한 내전이 337회, 1,000명 이상 전사자가 발생한 비국가단체간 전쟁이 62회 발생했다.¹⁾ 1816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가 관여된 군사적 위협, 군대 동원, 무력시위, 전투 등을 포괄하는 공격적 행위가 총 2,586회 발생했다.²⁾ *2 전쟁의 양상은 21세기에 들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국가 간 무력분쟁이 97회 발생했고, 2011년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경우 2015년 5월말 기준으로 전사자가 최소 25만 명,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³⁾

지상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전쟁이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까? 현대 전쟁의 큰 파괴력으로 인하여 인류의 멸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전쟁과 평화에 관한 질문은 인류의 실존적 문제가 되었다. 또한, 남북한이 서로에게 치명상을 가할 무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쟁과 평화의 문제는 한민족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평강의 하나님과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기독교(고후 5:18)인들은 평화와 전쟁의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평화와 전쟁에 관한 여러 관점을 기독교의 시각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첫째, 평화와 전쟁에 관한 성경의 언급을 분류한다. 구체적으로 평강/평화를 분석 수준에 따라 검토하며, 평화와 연결된 사회적/자연적 현상을 비교-분류한다. 또한 성경에 나온 전쟁을 전쟁의 발생원인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한다. 둘째, 평화와 전쟁에 관한 기독교의 주요 시각인 성전론, 정전론, 평화주의를 각각 정리한다. 이 세 가지 관점은 전쟁과 평화와 관한 현재 논쟁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셋째, 현대 국제정치학자들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제안한 여러 방책을 기독교의 전쟁/평화관으로 비추어 분류하고 조망한다.

II. 성경에서 나타난 평화와 전쟁

1)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4a.

2) Correlates of War Project, 2014b.

3) Zaimov, 2015.

4) 평강/평화와 하나님을 직접 연결한 성경 구절로 롬 15:33; 롬 16:20; 빌 4:9; 살전 5:23; 히 13:20; 고후 13:11 등이 있고, 평강/평화와 하나님/예수님을 직접 연결한 구절로 살후 1:2; 고전 1:3; 고후 1:2 엡 1:2; 빌 1:3 갈 1:3 롬 1:7; 딤후 1:2 등이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한 역사적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복음의 전파 과정 등 객관적으로 일어난 현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해석하여 기록한 산물이다. 따라서 성경은 객관적 현상으로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보여준다. 이 절은 평화와 전쟁에 관한 성경 구절을 검토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에 관한 성경적 해석을 정리한다.

1. 평화

성경에서 나타난 평화는 크게 네 차원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는 마음과 영의 안전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아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며 또한 선대하기 때문에 영혼이 평안하다(시 25:13; 시 116:7; 사 38:17). 개인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이 없는 상태가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외부적 환경이다(시 55:18). 또한 평화는 신체적 안전과 평온을 의미하기도 한다(겔 34:25-28; 렘 12:12; 살전 5:3). 구체적으로 평화는 번영과 형통을 의미하며(시 122:7; 욥 8:6; 욥 12:6; 욥 21:23; 렘 12:1), 건강 상태와 연 연결되기도 하고(막 5:34; 눅 8:48), 앞길에 장애물이 없는 상태와 이어지기도 하며(시 119:165; 잠 10:9; 사 57:2), 순탄한 자연사와 연관되기도 한다(창 28:1; 렘 34:5; 왕하 22:20). 이처럼 개인적 차원에서 평화는 여러 좋은 상태와 연결되지만, 궁극적으로 개인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욥 22:21; 신 28:28; 출 20:24).

둘째, 사람과 사람 간 관계의 차원에서 평화는 소극적 의미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 적극적 의미에서 양자 간 의견이 합치하는 상태다. 이웃을 해치 않으려는 마음이 이웃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전제 조건이며(잠 3:29), 대적하는 사람이 없기에 평안하며(시 55:18), 형제와 한 마음으로 같이 지내는 상태(고후 13:11)가 평화의 구체적 양상이다. 양자 관계의 차원에서의 평화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 양자 관계에 있는 두 행위자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면(레위기 19:18; 마 5:43; 막 12:31; 약 2:8), 이웃을 해치 않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반면, 이웃을 대적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이웃 사랑의 실천이 소극적으로 양자 간 갈등의 부재, 적극적으로 양자 간 마음의 일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셋째, 믿음의 공동체 차원에서 평화는 내부 질서, 안정, 그리고 번영을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평화는 이스라엘이 내전 위기에서 상하지 않고 벗어난 상태(삼하 17:3; 행 7:26)를 의미한다. 조금 더 적극적 의미에서는 평화는 교회 안에서 질서가 잡힌 상태(고전 14:33), 믿음의 공동체의 복지와 번영(렘 29:7; 겔 28:26; 겔 34:27; 슥 14:11; 시 128:2-6)을 의미한다. 공동체 차원의 평화도 궁극적으로 지도자와 하나님의 관계, 백성 전체와 하나님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위하여 개입하시거나(겔 34:25; 겔 37:26; 말 2:5; 사 54:10),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공동체가 평강의 복을 받거나(시 128:1-4)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함으로써 재앙을 피할 수 있다(왕상 21:29; 대하 12:6-12).

넷째, 정치 공동체 간 관계의 차원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한다.⁵⁾ 성경은 이집트를 나올 때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 간 전쟁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기에 그친 상태(삼상 7:14), 솔로몬 재위기 주변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던 상태(왕상 4:24), 아사 재위기 전쟁이 없는 상태(대하 14:6) 등을 평화로 표현한다. 전쟁의 부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아사가 선지자 아사랴에게 임한 말씀에 따라 우상숭배를 깨뜨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때부터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대하 15:1-19). 반면, 아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5) 신약에서 언급되는 전쟁은 종말과 연결되어 인간 집단 간 무력충돌(계 12:17; 계 19:19; 계 20:8)과 종말 이전 세상에서 발생하는 민족 간 무력충돌(막 13:7-8; 마 24:6-7; 눅 21:9-10)로 구분된다.

않고 망령되이 행한 시점 이후부터 유다와 주변 국가 간 전쟁이 있게 되었다(대하 16:7-9). 이처럼 성경은 전쟁의 부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해석한다.

종합하면, 성경에서 평화는 소극적으로 전쟁, 갈등, 혼란, 신체에 대한 위해, 질병 등 부정적 현상의 부재 상태를 의미하며, 적극적으로 형통, 번영, 이익의 조화, 영혼과 마음의 평온 등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네 차원의 평화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하거나,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준행할 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잠 16:7). 이처럼 성경은 평화에 관한 쟁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사람의 노력을 통한 평화의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본다(롬 12:18).

2. 전쟁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여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대신하여 또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전쟁에 참여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 정복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 군대장관을 파송하시거나(수 5:14),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신호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출 17:11; 민 31:6),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 전쟁에 관여하셨다. 모압, 암몬, 세일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할 때 하나님은 공격하는 민족끼리 서로 싸움을 하도록 하여 진멸시키셨다(대하 20:23-24). 성경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승전을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강하며 용맹하며 전쟁의 용사라고 표현한다(출 15:3; 시 24:8; 사 42:13). 하나님이 특정 사람과 함께 하실 때, 인간적으로 약한 사람도 용사가 되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히 11:34; 사 6:12).

둘째,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 또는 지도자를 징벌하기 위하여 전쟁을 사용하기도 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징벌 수단으로 전쟁을 사용하신다고 기록한다(왕상 8:46; 호 10:9; 대상 5:25-26; 암 1:14).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의 마음을 일으키시, 믿음의 공동체를 징벌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한, 지도자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 혹은 동족을 들어 믿음의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나도록 관여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3대 왕 바아사의 개인사를 하나님의 징벌 차원에서 조망한다. “바알은 태양이다”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바아사(Baasha)는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아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게 된다”는 끔찍한 예언이 임했고, 북이스라엘 5대왕 시므리에 의하여 실제로 집행되었다(왕상 16:1-19).

셋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전쟁이 불가피한 경우이다. 구약의 예언서와 요한 계시록에 있는 전쟁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막은 세력과의 싸움으로 특정 민족의 잘못 또는 특정 지도자의 범죄와 무관하게, 인류 구속사의 측면에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묘사된다(단 9:26; 단 10:1; 단 11:10; 계 11:7; 계 19:19). 이 유형의 전쟁은 악의 세력과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의 섭리와 충돌하기 때문에 일어나지만, 특정한 범죄를 징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 10장에 기록된 전쟁 예언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Cyrus king of Persia)의 범죄 또는 페르시아 백성의 범죄와 무관하다. 세마포를 입은 듯 보인 영적 존재, 천사장 미가엘, 지상에 존재했던 페르시아를 후원하는 영적 존재인 “페르시아 군주”, 지상에 존재했던 알렉산더 대왕 또는 알렉산더 사후 그리스 왕정을 후원하는 영적 존재인 “헬라 군주”와의 힘겨루기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난다(단 10:1-21).

기원전 853년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아람과 싸운 전쟁을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은 전

쟁에 관한 하나님의 관여와 인간의 죄성 간 상호작용을 흥미롭게 보여준다. 출발 지점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범죄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라못을 둘러싼 영토 갈등이었다.⁶⁾ 하나님은 악한 왕 아합을 꺾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할 마음을 먼저 가지셨다. 이후 한 영이 아합을 꺾어 길르앗 라못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선지자들에게 거짓 예언을 주어 유다왕 여호사밧까지 끌어들이었다. 전쟁터에서 아합은 악한 꺾을 내어 자신은 번복한 반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어 시리아의 정예병이 여호사밧을 공격하게 했으나, 결국은 자신이 화살에 맞아 전사했다. 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여호사밧은 전쟁터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면서 자연사를 맞이했다(왕상 22:1-50).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까지 들어 정의를 실현한다고 기록한다.

성경은 전쟁이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죄성 때문에 일어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인간의 죄성이 탐심으로 나타나 정치 공동체간 이해충돌로 이어지고, 전쟁을 통하여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언급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행위는 종말의 전조일 뿐이다(마 24:7-8; 막 13:8; 눅 21:9-10).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전쟁은 세상에서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마 24:10-12). 즉,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이 기록한 최초 전쟁의 시작은 인간의 죄성과 연관되어 있다. 창세기 14장은 사람의 타락을 상징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 “여신의 종”이라는 이름이 이미 암시하듯이 우상 숭배의 상징인 그돌라오멜(Chedorlaomel)이 벌인 전쟁을 기록한다.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등은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배반했고, 시리아 남쪽 엘람 지역을 통치하던 그돌라오멜은 다른 3개 민족을 이끌고 배신자를 응징하기 위한 전쟁을 벌였다. 전쟁에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이 승리했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거주민도 노예로 삼기 위하여 잡아갔다(창 14:1-12). 이 전쟁은 범죄한 인간 집단 간 무력충돌로, 전쟁의 목적이 노략질이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람의 죄성과 탐심에 의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요약하면, 성경은 전쟁을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인간 집단 간 무력행위 또는 인간 죄성에 따른 인간 집단 간 무력행위로 본다. 전자의 경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후자의 경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벌이는 추악한 행위의 결과가 전쟁이다. 양자 모두 하나님의 성품에는 부합하지 않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이 있어야 전쟁 상태에서 평화로 이행된다고 본다.

III.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 평화주의, 정전론, 성전론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은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영적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가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탄압을 받던 시절, 사도들과 교부들은 정교분리 상황에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관점을 재조정했다. 이후

6) 길르앗 라못(Ramoth-gilead)은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정복했던 곳이다. 가나안 정복 이전부터 도피처가 이곳에 설치되었고(신 4:43), 솔로몬 왕의 즉위식이 이곳에서 거행될 정도로(왕상 4:13),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였다. 시리아의 벤하닷 왕에게 정복된 이후, 시리아와 유다 간 영토분쟁이 일어났다.

로마의 기독교 공인, 이슬람으로부터 성지 회복, 종교개혁 등 중요한 역사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전쟁과 평화와 관한 기독교의 관점이 변화했다. 이 절에서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을 기독교 평화주의, 정전론, 성전론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1. 기독교 평화주의

초기 기독교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 평화주의와 무저항을 주장했다. 기독교인들이 평화주의를 주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상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금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답함으로써(마 22:21; 눅 20:25; 막 12:17), 예수님이 제자들은 로마의 조직화된 폭력에 협조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로마는 유대인에게 속주세의 납부만 요구했지 군역을 비롯한 여러 공적 의무를 유대인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로마의 관행을 수용한다면, 기독교인은 로마의 군대와 정치권력으로부터 무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 로마가 평화를 유지하는 “전쟁, 승리, 그리고 평화”에 기독교인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⁷⁾ 초기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 입장을 보일 수 있었다.⁸⁾

둘째,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전쟁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셨다. 예수님은 군역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눅 3:14; 마 8:5-13), 폭력을 통한 문제해결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다(마 26:52; 요 18:11). 폭력이 기독교인에게 가해질 때도 대적하지 말며 박해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마 5:38-45). 더 나아가,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마 22:39 마 5:43; 마 19:19; 막 12:31; 눅 10:27; 막 12:33)으로 가르쳤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표현되는 구약시대의 율법과 질적으로 상이했다.⁹⁾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를 규정한 초기 기독교인은 타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다.¹⁰⁾

셋째,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편적 사랑을 설파했다. 하나님이 민족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사랑을 베푸신다고 알렸으며(요일 4:9; 3:1; 요 3:16-17; 고후 5:19; 약 2:5), 이웃 사랑을 설파했다(약 2:8; 롬 13:9-10). 예수들의 제자들에 의하여 혈연에 기반을 둔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조직되었다.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에 의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기독교 교회는 유다 민족 중심의 폐쇄성에서 벗어났다. 교회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가 되었다.

기독교 평화주의는 종교개혁 시기 다시 부상했다. 스위스 형제단에서 유래된 재세례파는 교회와 국가 권력이 결합된 국가교회를 타락한 교회로 규정하고, 신약에 나타난 사도적 형태를 엄격히 지키려 했다. 이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하며 성경에 담긴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딤펴전 3:15; 골 1:18), 기독교인이 국가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16세기 재세례파의 신앙고백(Schleitheim Confession) 4조는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해석한다. 즉, “모든 피조물은 선과 악, 신앙과 불신, 어둠과 빛, 세상과 세상에서 나온 사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그리스도와 벨리알 등의 유형”으로 구분되며, 교회가

7) Wengst, 1994[1987], 37.

8) RoBainton, 1981[1960], 86-109; Russell, 1999, 376.

9) 구약시대에도 이웃 사랑의 계명이 있었고(레 19:18), 사회적 약자인 과부, 고아 등을 돌보라는 계명이 있었다(출 22:22; 신 24:17). 하지만, 범죄에 대해서는 보응 또는 보상을 정했다(레 20:15-16; 민 35:16-17; 민 35:21; 출 22:1-20).

10) Bainton, 1980[1960], 53-54.

“마귀가 심은 악한 자들과 사악한 자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따라서 이들은 국가의 통치 과정에 참여하길 거부했다.

재세례파는 평화를 전면에 부각했다. 재세례파의 신앙고백 6조는 “무력이 악한 자를 벌하며 죽이지만 선한 자를 지키며 보호한다”는 긍정적 역할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 “무력이 그리스도의 완전함 밖에 있다”고 규정한다. 무력은 세상의 위정자들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사용하는 도구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세례파는 무기를 들지 말아야 하며 전쟁에는 당연히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세례파는 국가 권력과 심각한 충돌을 경험하면서 동유럽, 러시아, 미주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 떠났다. 이들은 현재 메노나이트 교단으로 이어졌다.¹¹⁾

퀘이커교도(Quaker)와 형제단교회(Church of the Brethren)도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①퀘이커교도들은 모든 사람이 성령의 빛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퀘이커교도들은 “퀘이커교도를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이 퀘이커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하거나 이 세상의 왕국을 위하여 무기를 가지고 싸우거나 전쟁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고 평화를 전면에 내세웠다.¹²⁾ 이들의 교리가 세속 정치권력을 충돌을 빚어 종교적 박해를 받게 되자, 종교적 박해를 인내하거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②18세기 초 등장한 형제단교회도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국가의 통치행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며, 특히 국가가 주도하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¹³⁾ 형제단교회는 종말 직전의 혼란과 전쟁에서 인내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 구절에 주목하여(마 24:13; 막 13:13; 눅 21:19), 무력 대응보다는 무저항 인내를 강조한다.

20세기 기독교 평화주의는 천주교회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천주교회는 핵무기로 인하여 인류가 전멸할 수 있다는 위험을 지적하면서 인류가 더 이상 전쟁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¹⁴⁾ 천주교회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 총력전, 핵전쟁 등을 포함한 일체의 전쟁을 반대하며 선제공격과 무기경쟁도 반대한다.¹⁵⁾ 감리교 등 일부 진보적 성향을 보이는 개신교단도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예를 들어 감리교 주교단(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은 핵무기 반대, 핵전쟁 반대, 군비 반대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¹⁶⁾

요더(John Howard Yoder)는 20세기 기독교 평화주의자의 대표다. 요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죽음을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독교 평화주의와 무저항의 정당한 출발점으로 본다.¹⁷⁾ 예수가 보여준 순종은 무능함이나 포기가 아닌 “혁명적 순종”으로써 폭력이 아니라 사랑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모범으로, 모든 기독교인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¹⁸⁾ 요더는 무저항과 복종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실천적이고 급진적 정치 윤리를 주장했다

11) 김명배, 2014, 173-188.

12) Fox, 1660.

13) 형제단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형제단교회의 교리를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 2차대전 중 통계를 보면, 징집대상 형제단교회의 교인 중 10%만이 양심적 거부를 선택한 반면, 약 80%는 현역 군무를 선택했고 10%는 군무원으로 근무했다(Durnbaugh 1997, 474; Brown 1995, 467).

14) Pope Pual VI, 1960; Pope John Paul II, 1982; U.S. Bishops, 1983, para.331.

15) Darring, 1987.

16) The United Methodist Bishops, 1986, 49-52;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2009.

17) Yoder, 1971, 59

18) Yoder, 1994[1972], ch.9.

다.

요더는 세상과 교회가 대립적이지만 교회가 세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졌다. 즉, 요더는 세상에 있는 악한 정치권력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된다고 보고, 세상이 교회와 기독교인을 평화적 방식으로 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교회와 성도가 예수님처럼 평화적 방식으로 세상의 압박에 대처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비판적 증인의 역할을 담당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극복할 때, 세상에서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¹⁹⁾ 요더의 평화를 기독교 윤리의 중심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복음 자체를 비폭력적으로 해석했다.²⁰⁾

요약하면, 기독교 평화주의는 비폭력과 무저항으로 세상을 이김으로써 또는 세상의 악함을 인내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기독교 평화주의의 평화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비폭력과 무저항이 궁극적 평화를 앞당긴다고 주장한다. 즉, 비폭력이 평화로 이어진다.

2. 기독교의 정전론

정전론은 로마의 기독교 공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다. 교회와 정치권력이 밀접히 연결되면서, 교회는 로마의 정책에 협조하고 로마의 안녕을 기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가 실행하는 조직화된 폭력인 전쟁에 기독교의 관여를 정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여 기독교의 박해가 끝났지만,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평화주의 전통을 변모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국가에 의한 폭력이 기독교인의 의무와 긍정적 선으로 수용되게 되었다.²¹⁾

기독교의 정전론은 국가 권력과 교회가 밀접히 연결된 상황에서 평화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정치공동체의 안보를 조화시키기 위한 지적 활동의 산물이다. 기독교 정전론의 발전에 있어 세 교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첫째, 암브로시우스는 군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가 족한 출로 알라”고 대답한 성경 구절(눅 3:14)에 주목하면서, 군대를 자비와 자선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암브로시우스는 이웃이 공격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부덕한 사람 심지어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보았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정당한 폭력이 사용되어야 할 때에도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정당한 폭력의 행사가 긍정적 의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²⁾ 즉, 폭력이 세상의 선을 위하여 사용될 때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에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롭고 질서가 잡힌 무력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졌다.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질서가 있는 삶(saeculum)과 평안한 질서(tranquillitas ordinis)가 사회에서 최소공통분모로서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폭력은 정당하다고 보았다.²³⁾ 즉, 폭력의 사용은 불의를 당한 제3자를 보호하려는 기독교 사랑의 의무와 합치한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실한 기독교인은 좋은 시민으로 정당한 무력을 사용하여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극심한 불의를 제거해야 한다.²⁴⁾ 공동체 밖을 향한 폭력은 정의로운 평화를 위하여 주권

19) Yoder, 1971, 31.

20) Hauerwas, 1986[1974], 200.

21) Yoder, 1984, 135.

22) Ambrosius, para.129, *On the Duties of Clergy*, ch.27; Cole 2002, 20-21.

23) St. Augustine, *City of God*, Book 19, ch.13.

자에 의하여 사용될 수 있다.²⁵⁾ 구체적으로 불의한 압제자로부터 방어하거나, 적국에 갇힌 무고한 희생자를 보호/구호하거나, 동맹국을 방어하거나, 공격을 퇴치하기 위하여 주권자가 벌이는 전쟁은 정당하다. 전쟁 개시의 조건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폭력의 수위, 폭력 사용의 조건, 비전투원과 전투원 간 구별 등 전쟁 중의 절차적 정당성(jus in bello)도 중요하다고 보았다.

정전론을 집대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세상에서 정치권력을 가진 자가 세상 내 질서를 유지하며 사회의 부를 보호하는 것을 의무로 여겼다. 즉, 세상에서 정치권력을 가진 자는 공공선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한 조건에서 세속 군주가 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공동선을 목표로 하며,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전쟁 후 평화를 이룰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해결의 최종 수단으로 선택된 전쟁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가졌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폭력의 사용이 범죄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폭력이 “친절한 수준”(kindly severity)에 머물러야 한다고 주장하여, 전쟁 중 전투행위의 정당성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²⁶⁾

교부들에 의하여 발전된 정전론은 신교와 현대 천주교회로 이어졌다. 루터, 칼뱅, 츠빙글리는 모두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막기 위하여 세속 군주가 정의로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개신교 다수파는 교회와 세속 간 분리를 전제하지만, 세상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한다는 입장을 가진다(롬 13:1). 따라서 세속 군주가 세상에서의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고(딤후 2:1-2), 일정한 조건 아래서 세속 군주의 폭력 사용을 용인하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회가 분리된 상황에서도 국가에 의한 전쟁 준비와 폭력 사용을 조건적으로 용인한다. 현대 천주교회도 정전론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다. 천주교회는 자위권을 인정하고, 전쟁을 억지하는 선까지 핵역지 개념까지 수용한다.²⁷⁾

현대 기독교 신학자 중 니버는 기독교의 정전론을 계승한 대표적 신학자이다. 니버는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이 윤리적 당위이지만 세상에서 달성할 수 없는 이상이라고 고백한다.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계명이 이 세상에서 바로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은 사람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지만 유한한 피조물에 불과하며 인간 본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²⁸⁾ 니버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이 현실 세계에서 정합성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은 실현되지 못한다.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된 폭력이 용인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예를 들어, 니버는 군비경쟁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취하지만, 국가 간 분쟁이 존재하고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는 한 군비경쟁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정리하면, 기독교 정전론은 폭력적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또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하려고 한다. 즉, 제한된 폭력적 대응이 평화를 가져오는 수단이다.

3. 기독교의 성전론

성전론의 원형은 광야시대에 여러 차례 나타난다.²⁹⁾ 광야시대와 가나안 정복 시대 전쟁은 하나

24) St. Augustine, Letter 189.

25) St. Augustine, *City of God*, Book 19, ch.7.

26) Daryl, 2005, 597-598.

27) Darring, 1987.

28) Niebuhr, 1998[1935], 111.

29) 성경에는 성전에 해당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근접한 개념은 “여호와의 전쟁”이다(민

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통로였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적대하는 세력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을 섬멸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전쟁을 사용한다고 해석한다(신 2:34; 신 13:15; 신 7:2-24; 수 8:26; 수 11:11-21). 성전의 양상은 고대 전쟁과 상이하다. 예를 들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상황에서 모세가 전한 전쟁 관련 명령은 일반적 전쟁과 성전의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일반적 전쟁의 경우 공격하는 세력이 수비하는 세력에게 강화를 요구하고 수비하는 세력이 강화를 거부하면 전쟁이 시작된다. 승자는 함락된 성에 있는 성인 남자를 죽이고 여자, 유아, 육축, 재물을 노략할 권리를 가진다. 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준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에게는 호홉이 있는 사람과 동물을 진멸하라고 명령했다(신 20:10-18). 후자의 경우, 전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자비한 무력행사다.³⁰⁾

가나안 정복 이후 성전의 양상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운명에 따라 다르게 묘사된다. 이스라엘이 독립 국가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때, 다른 민족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전이 몇 차례 진행되었다(대상 4:41; 에 9:5; 암 2:9). 이스라엘이 독립을 잃은 후, 독립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몇 사건이 성전에 가깝게 묘사되었다(마카베오상 3:18-19; 마카베오하 8:9-24).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라는 개념은 구약 시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다.

성전(bellum sacrum) 개념은 1095년 천주교회에 의하여 공개적으로 사용되었다. 교황 우르바누스 2세(Urbanus II)는 동로마 제국과 루마니아가 이슬람 세력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으며 성지가 이슬람 세력의 지배로 들어간 현실을 언급한 후 기독교인 형제를 도우며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전쟁을 성전으로 표현했다. 성전이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 행위이며 성전에 참여하는 행위는 죄악을 씻는 행위로 묘사되었다. 성전 호소에 응한 경건한 사람들과 범죄를 용서받으려는 사람들이 성전 회복을 위한 전쟁에 참여했다.

기독교에서 성전 개념은 세 가지 계기로 힘을 잃었다. 첫째, 성지를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성지회복운동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거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절대자이자 주권자인 하나님이 정말 성지 회복을 원했고 또한 기독교인이 이 과업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성지가 당연히 회복되어야만 한다. 성지회복운동이 궁극적으로 실패하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종교개혁기 신교와 구교 간 전쟁으로 기독교적 성전을 주장할 근거를 잃었기 때문이다. 신교와 구교가 교리 해석을 두고 치열한 전쟁을 치렀지만, 신교와 구교 간 전쟁에 성전 개념을 적용하기에는 두 종파 간 유사점이 너무 많았다. 셋째,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정교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기독교 성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 현재 기독교 성전 개념은 보수적 기독교 비정부단체, 보수적 기독교인에 의해서만 통용되게 되었다.³¹⁾

21:14; 삼상 25:28). “여호와와의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진행하는 전쟁 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으로 해석된다.

30) 성전을 위임받은 행위자가 성전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을 때, 심대한 심판이 따른다. 예를 들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울이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차지하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울의 왕위를 폐했다고 기록했다(삼상 15:1-35).

31) 성전의 개념은 신약시대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으로 남기신 “다 이루었다”(요 19:30)는 말씀이 사단에 대한 최종 승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호와와의 전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인 일부는 성전을 언급한다. 20세기 초 “테러와의 전쟁”이 부시 미국 대통령과 참모진의 종교적 성향에 의하여 성전과 종종 연결되었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 현상이다(MacAskill 2005; Scheer 2004; Taylor 2009).

IV. 어떻게 평화를 이룰까?

전쟁과 평화는 국제정치학의 핵심 연구주제이다. 국제정치학의 존재 이유가 바로 전쟁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국제정치학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생각을 만들어 냈다. 이 절에는 국제정치학에서 개발된 평화구축안을 공세적 대응, 방어적 대응, 평화적 방화벽 구축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1. 공세적 대응

국가 간 전쟁은 이해갈등의 정도,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전쟁을 수행할 의지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폭력을 통한 공세적 대응은 상대방의 전쟁수행능력을 사전에 약화시킴으로써 상대방의 도발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상대방의 전쟁수행능력을 사전에 없앨 수 있다면,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킬 수도 있다. 극단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전쟁수행능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³²⁾ 전쟁수행능력의 사전 분쇄는 폭력 사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쟁을 막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

우선 예방전쟁(preventive war)과 선제공격(preemptive war)은 아직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재적 적국이 도발을 한다는 예상 아래 잠재적 적국의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군사적 행동이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 간 차이는 공격 임박성의 정도이다. 예방전쟁은 잠재적 적국의 공격이 임박하지 않지만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의미하는 반면, 선제공격은 잠재적 적국의 공격이 임할 때 상대방에 대한 무력공격을 의미한다. 양자 간 차이는 이념형에 따른 구분에 그치며 실제 세계에서 선제공격과 예방전쟁은 연속선 위에 있다.³³⁾

자위를 위한 전쟁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는 전쟁만 적법한 무력사용으로 규정하는 국제연합 헌장이 채택되기 전까지 선제공격은 자위권에 해당된다는 관습법이 통용되었다.³⁴⁾ 즉,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공격이 임박했다는 증거를 보이기만 하면, 선제적 공격이 적법 행위로 인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제1차 세계대전의 경우 누가 먼저 전쟁을 시작했는가 여부가 침략행위를 판단하는 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미 주요국이 군사동원을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쟁 임박을 이유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국제연합 헌장의 채택 이후 선제공격의 적법성에 대한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무력을 먼저 사용한 국가들은 모두 임박한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자위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967년 이스라엘의 공격은 선제공격으로 인정을 받은 반면,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Osirak) 원자로를 공격한 사건, 200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 원자로를 공격한 사건, 2001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아프가니스탄 공격, 2003년 미국 주도 연합군의 이라크 공격은 선제공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벌인 전쟁에서는 임박성의 정도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가? 잠재적 적국에 대한 예방전쟁과 선제공격은 전쟁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전쟁의 수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2003년 이라크 전쟁은 안정화 작업의 실패 또는 미진으로 인하여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평가된

32) 코스타리카가 1949년 군대를 해산했다.

33) 강임구, 2009, 37-39, 공격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기습(surprise attack)이다. 이는 명백하게 국제법을 위반하는 침략행위다.

34) Arend, 2003, 90-91.

다. 1981년 오시라크 원자로 공격과 2007년 시리아 원자로 공습은 국제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무기제조능력을 감소시켰지만, 중동의 긴장은 해소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안보위협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최소한 사건 발생 당시 긴장이 높아졌다.

2. 방어적 대응

잠재적 적국의 전쟁수행능력에 맞서기 위하여 자국의 방어능력을 키워 전쟁을 막는 방책은 양국 간 국력차이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자국이 군사적 능력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수준까지 유지하는 방식이다. 자국의 군사력이 잠재적 적국을 압도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패전을 예상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쉽게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압도적 국력을 가진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추세가 확인된다. 즉, 압도적 군사력은 상대방의 도발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 하지만 반대 경우 또한 자주 확인된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약한 국가를 위협하거나 약한 국가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정의롭지 못한 평화가 초래될 수 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핵보유국에 대한 도전이 줄어들지만, 핵보유국에 의한 압박 또는 도전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³⁵⁾

둘째, 잠재적 적국의 군사력에 비례하여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책이다. 이 방책은 전쟁의 승패 가능성이 0.5 근처로 모이면 전쟁의 불확실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피하려는 잠재적 적국이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은 자체 무장력을 활용하는 내적 균형과 동맹을 활용하는 외적 균형으로 나뉜다. 전자는 오랜 시일이 걸리고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세력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후자는 짧은 시일에 효과를 가져오고 경제적 부담이 없지만, 동맹국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세력균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 세력균형은 정책으로써 익숙한 개념이지만, 경험 세계에서 평화보다는 갈등과 연결되는 경향을 보인다. 세력균형론의 가정과 달리 전쟁의 불확실성은 전쟁을 피하도록 하기 보다는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공격적으로 인지하여, 안보불안이 커지는 효과도 가진다.

셋째, 억지력을 유지하는 방책이다. 잠재적 적국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와 달리 억지는 잠재적 적국이 도발할 때 자국이 가하는 피해 때문에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한다. 즉, 잠재적 적국이 도발을 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도발에 대한 보복으로 인하여 심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만듦으로써 잠재적 적국의 자제를 유도한다. 성공적 억지는 상대방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보복 능력의 유지와 실제 사용할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상대방의 도발을 막는 방책이다. 특히 최소억지 정책을 따르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억지정책은 본성상 불안정하다. 억지방책을 사용하는 국가는 잠재적 적국으로 하여금 도발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라고 강요하지만, 잠재적 적국이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억지정책이 효과를 가지지 못한다. 즉, 잠재적 적국이 도발에 따른 모든 피해를 감수할 의지를 보이면서, 반대로 억지정책을 쓰는 국가에게 도발에 대한 보복이 초래할 피해와 무대응 사이에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 벼랑 끝 전술과 물귀신작전으로 상대국이 버틸 경우 합리적 억지가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

35) Geller, 2014, 141-160.

3. 평화적 방화벽 설치

비폭력적 방법으로 평화를 도모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민주정을 채택하여 집권자가 자의적으로 전쟁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왕정 국가에서는 군주가 전쟁으로 인한 이익을 전유하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감내해야 하는 피해는 신민이 담당한다. 반면 민주정에서는 시민이 전쟁의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과실을 함께 경험한다. 즉, 민주정에서는 다스림을 받는 자와 다스리는 자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민주 국가는 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진다.³⁶⁾ 민주정의 권력분립, 탄핵, 법치 등은 정치권력의 자의적 사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이다.

민주평화론은 경험 세계에서 타당성을 가지지만 민주정과 평화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위험은 민주주의 국가와 권위주의 국가로 이루어진 쌍 또는 권위주의 국가로 이루어진 쌍보다 훨씬 낮다.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 간 전쟁을 경험한 사례는 아예 없다. 이런 통계 수치는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 관계가 다른 국가쌍에 비해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하지만 왜 민주주의 국가가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전쟁을 하지 않는지는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간 선호 일치, 경제적 관계, 규범 일치, 민주주의 국가의 제도적 장벽 등이 평화를 도모하는 요인이라는 가설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확산시킴으로서 국제평화를 가져오려는 정책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과 독일처럼 민주주의가 이식된 후 평화를 추구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대부분은 민주주의 이식에 성공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민주주의 확산을 둘러싼 단기 갈등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공유하여 전쟁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다. 최소한 단기적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와 무역의 결합은 무역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에게 이익을 가져온다. 만약 비교우위가 인위적으로 창출되지 않고 부존자원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무역은 장기적으로도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에서 이익을 가져온다. 특정 국가가 분쟁에 연루될 경우 무역으로 인한 향유하던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 특히, 무역으로 인한 이익을 정치권력을 장악한 일부 사회계층이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향유할 때, 전쟁으로 인한 포기해야 할 무역의 이익에 국민들이 더 민감해질 수 있다.³⁷⁾ 무역의 파괴가 전쟁 즉, 촘촘한 무역관계에 참여하는 국가가 분쟁에 연루될 경우 포기해야 할 이익이 전쟁을 결정하는 임계점을 높일 수 있다. 통계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바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무역 규모가 많은 국가쌍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보인다. 구체적 사례로서 델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공급망에 있는 국가 들끼리 전쟁하지 않는 현상은 무역이 전쟁의 방화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³⁸⁾

무역평화론은 정책으로서 두 가지 난제를 가진다. 먼저, 무역이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우호적 국제관계의 산물이지 무역이 평화의 생성요인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도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역은 경제적 손실을 항상 수반하며 무역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안보적 요인과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무역 상대국의 선정은 정치적 요인, 경제적 이익과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무역량은 교역국가 간 평화에 기여하는 독립변수가 아니라 평화를 반영하는 종속변수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무역 자체가 갈등요인이

36) Kant, Sect.2, Art.1.

37) Mousseau, 2014, 195-205.

38) Friedman, 2005, 421.

될 수 있다. 국가 간 접촉의 부재는 이해충돌의 부재로 이어지는 반면, 국가 간 접촉의 증가는 잠재적 이해충돌의 개연성을 높인다. 실제 무역관계를 가지는 국가들은 낮은 강도의 분쟁에 더 많이 연루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평화 사상의 확산이 국가 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정 생각은 행위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자의 정체성은 사회적 현상으로 이어진다. 만약 평화 사상을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게 될 경우, 국가 간 평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현상의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지만, 생각이 개인 차원의 사회현상은 물론 국가 차원의 사회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전쟁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정치의 연장”이고 “전쟁은 외교의 연장”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부정하는 켈로그 브리안(Kellogg-Briand) 조약 이후 적실성을 잃어가고 있다.³⁹⁾ 전쟁을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부정하는 생각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평화 사상의 확산에 따라 전쟁의 임계점을 높이려는 노력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넷째,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가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국가 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의 실패, 2차 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무기력이 보여주었듯이 국제기구는 주권국가의 권위에 앞선 권위를 가지지 못한다. 국제기구를 세계연방의 초보 단계로 파악하는 시각에서는 국제기구가 평화에 기여하는 바를 낮게 평가하겠지만, 국제기구는 국가 간 의견전달의 장소로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의사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전쟁에 관한 의지가 국제관계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현대 전쟁의 파괴력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쟁점의 중요성, 국력 차이, 쟁점을 무력의 사용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진정한 의지 등이 모두 공개된다면, 전쟁을 통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무력의 사용을 통해서라도 쟁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모두 모르기 때문에, 국제관계에서도 허풍과 기싸움이 전개된다. 이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관련국 간 의견교환의 통로로 사용되어 전쟁과 관련된 정보가 서로 전달된다면, 쟁점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V. 나가는 글

평화를 이루는 여러 방식 중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간 관계에 관한 믿음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웨이커교도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내부 빛”(inner light)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무기를 휴대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선택적 사랑으로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악인을 대상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요더처럼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룩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무저항 평화주의가 그 믿음에 부합한다. 반면, 사람이 우주적 교회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에 속한다고 믿는다면, 사회의 공공선을 위한 폭력 사용을 용인할 수 있는 교리적 해석 공간이 생긴다. 이처럼 평화에 관한 관점은 교리와 교단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기독교 교리와 교단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예방전쟁이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는

39) Clausewitz, 1984[1832], 87; Lenin, 1915.

거의 모든 기독교인이 동의한다고 본다. 극소수 성전론자를 제외한다면, 기독교 교단을 가로지르는 공통 합의점이 존재한다. 기독교 현실주의/정전론을 가장 넓게 해석하면 선제공격까지, 가장 좁게 해석하면 최소 억지까지 기독교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비폭력적 방법으로 전쟁의 방화벽을 높이는 노력에는 거의 모든 교단이 동의한다고 보인다. 교단 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지점에는 연합하여 평화를 이루도록 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점에서 각자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임구, “선제공격의 정당성 확보 모델 연구”, 《군사발전연구》, 3(1), 2009, 35-64.
- 김명배, “16세기 재세례파의 《실라타임 신앙고백(Schleitheim Confession)》에 나타난 교회와 국가의 관계와 기독교 윤리”, 《현상과 인식》 38(3), 2014, 171-191.
- Ambrosius, Aurelius, *On the Duties of Clergy*.
<http://www.biblestudytools.com/history/early-church-fathers/post-nicene/vol-10-ambrose/ambrose/duties-clergy-introduction.html>
- Arend, Anthony Clark, “International Law and the Preemptive Use of Military Force”, *The Washington Quarterly* 26(2), 2003, 89-103.
- Associated Press, “Pope’s message to Bosnians: ‘War never again!’” *Los Angeles Times*, 2015. 6. 6.
- Bainton, Roland H, 《전쟁, 평화, 기독교》,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1960].
- Bowman, Carl, *Brethren Society: The Cultural Transformation of a “Peculiar People”*,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Clausewitz, Carl von, *On War[Vom Krieg]* (edited by Michael Howard and Peter 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1832].
- Cole, Darrle, *When God Says War Is Right: The Christian’s Perspective on When and How to Fight*, Colorado Springs, CO: Waterbrook Press, 2002.
- Correlates of War Project, “COW War Data, 1816-2007” v. 4.0, 2014a.2.5.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
- Correlates of War Project,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v. 4.1. 2014b.2.5.
<http://www.correlatesofwar.org/data-sets/MIDs>.
- Darring, Gerald, *A Handbook of Catholic Social Teaching-War and Peace*, 1987.
http://www.shc.edu/theolibrary/resources/handbook_warpeace.htm.
- Daryl, Charles, J. “Just-War Moral Reflection, The Christian and Civil Society”, *Journal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48(3), 2005, 589-608.
- Durnbaugh, Donald F. *Fruit of the Vine: A History of the Brethren: 1708-1995*, Elgin, IL: Brethren Press, 1997.
- Fox, George, “A Declaration from the Harmless and Innocent People of God called Quakers against All Sedition, Plotters and Fighters in the World”, 1660.11.21.
<http://www.quaker.org/peaceweb/pdecla07.html>.
- Friedman, Thomas. *The World is Flat*, New York, NY: Farrar, Straus and Giroux, 2005.
- Geller, Daniel S. “Nuclear Weapons and War.” in John A.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the War?*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2014.

Hauerwas, Stanley,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1974].
<http://www.usccb.org/upload/challenge-peace-gods-promise-our-response-1983.pdf>.

Kant Immanuel, *Perpetual Peace: A Philosophical Sketch*, 1795.
<https://www.mtholyoke.edu/acad/intrel/kant/kant1.htm>.

Lenin, Vladimir I. *Socialism and War*, 1915.
<https://www.marxists.org/archive/lenin/works/1915/s+w/ch01.htm>.

MacAskill, Ewen. "George Bush: 'God told Me to End the Tyranny in Iraq'", *The Guardian*, 2005.10.7.

Mousseau, Michael, "A Market-Capitalist or a Democratic Peace." in John A. Vasquez ed., *What Do We Know about the War?* New York, NY: Rowman & Littlefield, 2014.

Niebuhr, Reinhold, 《기독교윤리학》, 은성, 1998[1935].

Pope John Paul II. "Message of His Holiness Pope John Paul II to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1982.6.7.

Pope Paul VI. "Address t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65.10.4.

Russell, Jane Elyse, "Love Your Enemies: The Church as Community of Non-Violence", Ash, Christopher and R. Kent Hughes, eds., *The Wisdom of the Cros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Sarkees, Meredith Reid and Frank Wayman, *Resort to War: 1816-2007*, Washington DC: CQ Press, 2010.

Scheer, Robert, "With God on His Side...", *Los Angeles Times*, 2004.4.20.

St. Augustinus, Aurelius Hipponensis, *City of God*.
<http://www.newadvent.org/fathers/1201.htm>

St. Augustinus, Aurelius Hipponensis, *Letters of St. Augustine of Hippo*,
<http://www.newadvent.org/fathers/1102.htm>

Taylor, Aaron, "Was Iraq a Holy War?" *Sojourners*, 2009.5.22.

The United Methodist Bishops, *In Defense of Creation*, Nashville, TN: Graded Press, 1986.

The United Methodist Council of Bishops, *God's Renewed Creation: Call to Hope and Action*, 2009.11.3.

U.S. Bishops, *The Challenge of Peace: God's Promise and Our Response*, 1983.5.3.

Wengst, Kalus, 《로마의 평화》, 한국신학연구소, 1994[1987].

Yoder, John Howard, *The Original Revolution: Essay on Christian Pacifism*, Scottsdale, PA: Herald Press, 1971.

Yoder, John Howard, *The Politics of Jesus: Vicit Agnus Noster*, Grand Rapids, MI: Eerdmans, 1994[1972].

Yoder, John Howard, *The Priestly Kingdom: Social Ethics as Gospel*, Notre Dame ID: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4.

Zaimov, Stoyan, "Syrian Civil War Death Toll Climbs Over 320,000 Casualties; Observatory Group Slams International Community's Silence as Encouraging Bloodshed", *CP World*, 2015.6.10.